

#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Time Spent by Urban Housewives : 1980 and 1990 Comparison—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임 정 빈

한양여자전문대학 여성교양과

강 사 임 혜 경

Dept. of Home Management of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Jeong - Bin Im

HanYang Women's College

Instructor Hae-Kyung Lim

##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time use of urban housewives 1980 and 1990, and to investigat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 to the time spent, the independent effect of variables to the time use of her them.

For this purpose, the data from 261(1980) and 287(1990)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are follows:

1. There was 3-4 hours decreasing for household work in 1980 & 1990, and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age, number of children, years of youngest child, education, type of kitchen, and type of heating, but in 1990, number of children and education of housewife.

2. In 1990, the independent effect of variables to household work time are number of children, years of youngest child, and cooking fuel to household work time and income to physiological time.

## I. 서 론

시간은 인적자원으로서 다른 자원사용에 있어서 중심적인 기능을 한다. 인간은 제한된 시간내에서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생활시간이란 하루의 생활내용을 시간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생활의 주체인 사람이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주부의 생활시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노동시간이며 이 시간은 주부의 내재적인 조건과 외재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주부 생활시간의 내재적 조건으로는 주부의 가치의식, 태도, 사회인구학적조건 등을 들 수 있고 외재적 조건은 가정설비, 시설, 그리고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장조건 등을 들 수 있다. 내재적 조건과 외재적 조건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에서 주부의 생활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된 바 있는 소득과 가정설비, 시설, 그리고 시장조건 등은 사회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80년에서 1990년으로 오면서 한국은 GNP 성장율이 안정되고 서비스산업의 증대와 민간소비지출이 안정되고 있는데(한국은행, 1990 : 1) 이러한 서비스 경제로의 이전은 가정생산재의 많은 부분이 시장재화와 용역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Weagley and Norum, 1989:6).

1980년대 한국의 민간소비지출패턴을 살펴보면 88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하는 1980년대 후반기에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식품비는 1985년부터 1990년 사이에 39%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식품의 고급화, 개성화, 생활의 편리성 추구에 따른 값비싼 가공식품 사용의 증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등도 같은 기간동안 2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생활의 질적인 면의 향상으로 인한 것으로 본다.

가족규모의 축소 및 자녀출산기와 양육기의 단축, 노년기 연장 등으로 여성의 생애주기가 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교육기회증대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인식변화에 따른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기존의 주부의 위치와 역할의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할 때 가사적 생활 양식과 주부의 의식도 크게 변화, 발전되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주부의 가정노동시간의 편성과 크기가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추측되어, 관련변인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관련변인이 주부의 생활시간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생활시간의 의의와 분류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하루 24시간씩 제한적으로 주어지며, 생활시간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생활활동에 배분된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각 가족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생활의 질과 목표달성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시간이 생활내용에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관심을 갖는 생활시간의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생활의 영역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이다. 생활행동의 분류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최소단위인 개별활동에서 시작하여 점차 더 큰 분류인 행위로 묶어 나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적인 수준에서 시작하여 대분류하고 다음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시하는 방법이다(Matsushima & Suzuki, 1982 : 232)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이뤄진 생활시간 연구의 대부분은 주부의 가정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또는 생활시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대개 생활내용을 대분류한 후 각 분류에 속하는 생활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Feldmann과 Hornik (1981)은 생활시간은 크게 노동과 노동이 아닌 일로 구분하고 노동이 아닌 일에 필수적인 일, 가정노동, 여가를 포함시켰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는 생활행동시간을 생활필수시간, 노동시간, 그리고 여가로 크게 나누고 생활필수시간에는 수면, 식사, 그리고 신

변잡일을 포함시켰으며 노동시간에는 일, 가사, 통근 시간을, 여가시간에는 개인적인 교제, 안정과 휴식, 취미와 오락, 신문, 잡지, 책, 라디오, TV 시청 등을 포함시켰다. Matsushima & Suzuki(1982, 204)는 생활시간에 대해 시간적배분적 관점에서 크게 세가지 영역, 즉 생리적 필수시간, 총노동시간, 그리고 사회문화적 시간으로 나누었다. 그는 생리적 필수시간에는 수면, 식사, 개인적관계, 의료를 포함시켰다. 총노동시간은 다시 생산노동시간과 가정생산노동시간으로 분류하여 생산노동시간에는 근무, 통근, 기타근무를, 그리고 가정생산노동시간에는 식사준비, 주택관리, 세탁, 바느질, 자녀양육, 교육, 기타를 포함시켰다. 사회문화적 활동시간에는 독서, 신문, TV, 라디오, 성인교육, 취미활동, 문화활동, 레크리에이션, 운동, 휴식, 잡담, 교제, 사회적행사, 기타 등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생활시간 연구에서는 주부의 생활시간 구조를 크게 3가지 영역, 즉 생리적 시간, 가정노동시간, 여가시간 (혹은 사회문화적 시간)으로 구분한 것(임정빈, 1981)이 일반적으로 Matsushima의 대분류와 거의 일치한다. 최근에 이르러 임정빈(1981), 문숙재(1988)에 의해서 가정노동시간은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의생활관리, 가족돌보기, 경영 및 장보기로 종합정리된 바 있고, 여가시간은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다(한경미, 황덕순, 1990).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생활시간을 가정노동시간, 생리적시간, 사회문화적시간(여가시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2) 관련변인

주부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주거환경 변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① 사회·인구학적 변수

주부의 연령은 생활시간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30代 주부의 가정노동시간이 제일 길고,

30代 미만의 주부와 50代의 경우는 짧다(강신주, 1968). 여가시간은 20代일때 가장 많고 30代부터 40代까지 감소하며 40代부터 50代까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원임, 1976 ; 강신주, 1968 ; 김행자, 1976 ; 김의숙, 1977).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은 주부의 생활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수가 많으면 주부의 가정노동시간은 증가되는 반면 여가시간은 감소한다(Walker & Woods, 1976 ; Sanik, 1981 ; 이정수, 1984 ; 한경미·황덕순, 1990). 자녀수의 증가는 가정노동시간증가를 가져오므로 주부들은 가사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녀양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분하기 위해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는 가정노동을 사회화 시키려고 한다(이기영, 1987).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주부의 가정노동시간은 증가하며(Walker와 Woods, 1976 ; 안영희, 1977 ; 한경미, 1987 ; Hafstrom & Schram, 1983 ; Goebel & Hennon, 1983) 여가시간은 감소한다(Nockols外, 1983 ; Hill, 1988 ; 한경미·황덕순, 1990). 그런데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정노동사회화 경향이 달라지게 된다. 식생활 부분에서 외식의 경우를 보면, 막내자녀가 6세 이하인 가정의 외식비는 낮은 반면 12세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나고(Goebel & Hennon, 1979)이다. 그러나 한편 막내자녀 연령은 가정노동서비스의 사회화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어(조성은, 1990)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교육수준은 인적자본으로써 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임정빈, 1981). 그런데 연구결과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정노동시간과는 관련이 없거나(Nichols & Metzen, 1978 ; 이정수, 1984)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으면 가정노동시간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자녀양육 및 기타 관리적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한경미, 1987 ; Leibowitz, 1974). 여가시간은 증대한다(강신주外, 1968 ; 민경애·윤복자, 1985 ; 한경미·황덕순, 1990).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정노동시간은 감소하고(Nichols & Metzen, 1978 ; Hafstrom & Schram, 1983 ; gksrudal, 1987).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민경애·윤복자, 1985 ; 한경미·황덕순, 1990).

## ② 주거환경변수

주거환경변수중 주부의 생활시간을 설명해주는 것으로는 주택형태, 난방방법, 취사용연료를 들 수 있다.

먼저, 주택형태에 따라서 생활시간의 차이를 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의 가정노동시간이 아파트 거주 주부보다 길고(임정빈, 1981 ; 문숙재, 정영금, 1988)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의 여가시간은 단독주택 주부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김행자 : 1970 ; 한경미, 황덕순, 1990).

더불어 난방방법이 중앙난방인 가정의 주부의 여가시간이 연탄아궁이인 가정의 주부보다 많으며 취사용 연료로 석유나 Gas를 사용하는 가정이 연탄사용 가정보다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정빈, 1981 ; 민경애, 윤복자, 1985). 즉, 주거환경조건은 주부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노동절약적 시설, 설비가 한층 향상된 1980년대 주부들의 생활시간구조도 많이 달라졌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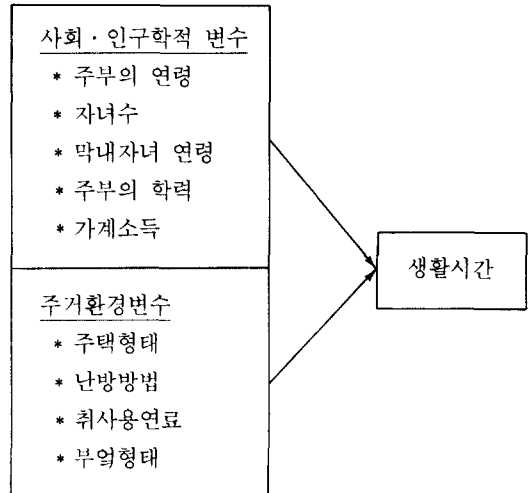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 관련변인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3. 관련변인의 독립적인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를 도식화하면 다음 모형과 같다.



### 2)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는 질문지법에 의한 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주부의 생활시간을 조사하기 위한 시간 일기표로 구성되었다.

생활시간 일기표는 생활영역을 모두 14개의 하위 영역 : 수면, 식사,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의생활관리, 가족의 신체적돌보기, 비신체적돌보기, 가정경영, 기타가사,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몸단장, 기타시간으로 제시하였다. 시간기재방식은 하루 24시간을 회상하여 평일과 휴일, 2일에 대한 시간사용을 10분 간격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두가지 일을 했을 경우에는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본 척도의 신뢰도  $\alpha = .7264$ 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자녀수, 막내 자녀연령, 주택형태, 난방방법, 취사연료, 그리고 부엌형태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1980년의 자료는 연구자가

1980년에 행한 시간사용연구에서 수집한 서울시 거주 주부 261명에 대한 자료이다. 1990년의 조사대상은 '전국도시지역 토지지가조사표'에 의거하여 동별 주택지역 상가지역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 두 지역에서 上上부터 下下까지 6개 지역으로 분류한 후 모두 12개 지역에서 다단계층화 집락표집에 의해 표집하였다. 조사방법은 훈련된 조사자가 직접 면접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시기는 1990년 11월 3일-11월 30일에 실시하였다. 배부한 550부의 질문지 중 491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기재가 부실하거나 생활시간조사가 미흡한 것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것은 287부였다.

#### 4)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시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했으며 관련변인에 따른 생활시간을 알기 위해 ONE-WAY ANOVA와 Scheffe-Test를, 그리고 채택된 변인들이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는 MCA를 통해 분석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1980년과 1990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1980년의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으나 1990년의 조사대상자는 30대와 40대가 비슷하게 표집되어 1990년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다. 자녀수는 1980년의 경우 3-4명인 주부가 48.7%, 5명 이상은 30.2%로 이 두 집단이 거의 80%에 이르고 있으나 1990년 조사대상은 2명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규모의 축소현상을 반영해 준다. 막내자녀의 나이는 1980의 표본의 경우 학령후가 84.6%인데 반해 1990년의 표본은 학령전, 국민학교시기, 청소년기, 10대 이상인 경우가 골고루 분포되어있다. 이것은 1990년 표본의 연령이 다소 낮게 분포된 점과 관련있다고 본다.

1980년에 비해 1990년 주부와 남편의 학력수준이

높고, 월수입은 물가상승이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절대가격은 상승했으나 각 계층별 분포도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의 주택형태는 한옥과 양옥 등 단독주택이 거의 85%를 상회하고 있는데 반해 1990년대에는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의 집합주택의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더불어 난방방법이나 부엌형태, 취사사용연료에서도 1980년에는 연탄아궁이가 62.5%, 재래식 및 절충식이 39.7%와 16.5%, 그리고 취사사용연료로 연탄을 사용하는 비율이 64.3%였는데 비해 1990년에는 보다 가정노동을 편리하게 중앙난방방법이 97%, 입식부엌이 89.9%, 취사사용연료로 가스 및 전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96%이상인 것으로써 우리나라 가정의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2) 도시주부의 1980년과 1990년 생활시간의 비교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을 1980년과 1990년, 10년간의 변화를 비교한 것은 (표 2)와 같다. 1980년대에는 한국에 있어 산업화 촉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가정과 사회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주부의 생활시간에도 큰 변화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주부의 가정노동시간의 크기와 내용의 변화는 도시가정에 나타난 생활양식의 변화와 가정노동의 사회화의 정도와 그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가정노동시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11.8시간에서 8.40시간으로 감소하였고, 휴일에는 13.4시간에서 8.06시간으로 더 많이 줄었다. 휴일에 가정노동시간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10년 동안 생활양식이 바뀌어 주부도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기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식생활관리 시간은 평일과 휴일에 모두 2시간정도, 의생활 관리시간은 약 1시간, 주생활 시간은 0.5시간 감소하였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식생활의 간소화, 편의식품 이용, 외식의 증가, 세탁기 보급, 기타 시장상품과 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인한 결과라고 본다. 그에 반해 시장보기 등 가정관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980년과 1990년

변 수	1980년		1990년	
	집 단	빈도(백분율)	집 단	빈도(백분율)
주부의 연령	39세이하	62(23.8)	29세이하	52(18.1)
	40-49세	166(63.6)	30-39세	92(32.1)
	50세이상	33(12.6)	40-49세	87(30.3)
			50세이상	56(19.5)
자녀의 수(명)	없다	15(5.7)	없다	20(7.0)
	1-2명	40(15.3)	1명	64(22.3)
	3-4명	127(48.7)	2명	119(41.5)
	5명이상	79(30.2)	3명이상	84(29.3)
막내 자녀의 나이	학령전	40(15.4)	6세이하	79(27.5)
			7-12세	54(18.8)
	학령후	221(84.6)	13-18세	71(24.7)
			19세이상	83(28.9)
남편의 학력	국졸이하	29(11.0)	중졸이하	12(4.2)
	중졸	40(15.3)		
	고졸	92(35.2)		
	대졸이상	88(33.7)		
	기타	12(4.6)		
주부학력	국졸이하	71(27.6)	중졸이하	36(12.5)
	중졸	77(29.5)		
	고졸	72(27.2)		
	대졸이상	39(14.9)		
	기타	2(0.8)		
소득(만원)	20만원이하	64(24.5)	80만원이하	61(21.3)
	21-30만원	91(34.9)	81-120만원	73(25.4)
	31-50만원	77(29.5)	121-160만원	59(20.6)
	51만원이상	25(9.6)	161-200만원	49(17.1)
	기타	4(1.5)	201만원이상	45(15.7)
주택형태	한옥	97(37.2)	한옥	17(5.9)
	양옥	124(47.5)	양옥	94(32.8)
	연립주택	27(10.3)	연립주택	39(13.6)
	아파트	12(4.6)	아파트	132(46.0)
	기타	1(0.4)		
난방방법	연탄아궁이	163(62.5)	연탄아궁이	5(1.7)
	연탄보일러	51(19.5)	연탄보일러	55(19.2)
	기름보일러	40(15.3)	기름보일러	225(78.4)
	기타	7(2.7)	(가스)	
부엌형태	재래식	103(39.7)	재래식	8(2.8)
	입 식	110(42.1)	입 식	258(89.9)
	절충식	43(16.5)	절충식	19(6.6)
	기 타	5(1.9)		
취사용연료	연탄	40(15.3)	연탄·석유	10(3.4)
	연탄·석유	118(45.2)		
	연탄·전기	10(3.8)		
	석유	21(8.0)		
	가스	44(16.9)		
	가스·전기	12(4.6)		
	기타	16(6.1)	가스	172(59.9)
		가스·전기	104(36.2)	

〈표 2〉 1980년과 1990년 생활시간 비교

단위 : 시간

1980년			1990년		
생활내용	평일	휴일	생활내용	평일	휴일
가정노동시간			가정노동시간		
취사노동시간	4.7	5.1	식생활관리	2.9	2.9
주생활노동시간	1.7	1.9	주생활관리	1.3	1.2
의생활노동시간	2.1	2.4	의생활관리	1.1	1.1
가정관리시간			가정관리시간		
시장보기	1.0	1.1	가정경영	1.4	0.9
가계부기입	0.4	0.5			
아이보기	0.5	0.8	가족돌보기	1.8	2.0
가족시중	1.4	1.0			
소계	11.8	12.4	소계	8.6	8.
생리시간			생리적시간		
몸단장	0.9	1.1	몸단장시간	1.0	1.
수면	6.5	7.3	수면시간	7.2	8.
식사	0.8	0.8	식사시간	1.7	2.
휴식	0.9	1.0			
소계	9.1	10.2	소계	9.9	11.6
문화생활시간			여가시간		
외출	1.2	1.5	적극적여가	0.6	0.6
취미	0.7	0.7			
사교	0.4	0.5			
전화	0.2	0.2			
TV시청	1.6	2.4	소극적여가	2.8	3.6
소계	4.	5.3	소계	3.4	4.2

시간은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가족돌보기시간은 1990년에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특히 휴일에 2시간이 증가한 것은 주부가 휴일에는 다른 가정노동보다 가족에게 봉사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사료된다.

생리적 시간에는 수면, 식사, 휴식, 몸단장이 포함되는데 이 시간은 10년동안 증가하여 평일에는 0.8시간, 휴일에는 1시간 반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규모의 축소와 생활수준이 향상과 더불어 주부의 의식도 독립적으로 변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주부는 자신의 시간을 거의 모두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희생적이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 함으로서 주부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반해 현대 도시 주부는 자기 자신

을 스스로 보호하고 가꾸는 자존의 의식이 발달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여가시간은 내용분류에 있어 1980년과 1990년에 일치되지 못하여 비교할 수 없으나 10년 동안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적극적인 여가 즉, 활동적인 여가시간에 비해 소극적인 여가 즉, 수용적인 여가활동으로 T.V.시청, 음악감상, 독서, 잡담 등의 여가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여가시설부족과 한국인의 소극적인 생활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관련변인에 따른 생활시간

#### (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생활시간 (표3-1)

##### ① 주부의 연령

1980년과 1990년 조사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평일의 식생활관리, 의생활관리, 여가생활시간이며 추가정노동시간과 주생활관리시간은 1980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과 1990년에 평일에는 연령이 많을수록 식생활시간이 증가하였다. 의생활관리시간은 1980년에는 연령이 많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에는 별차이가 없다. 여가시간은 1980년과 1990년에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든 연령에 있어서 여가시간은 증가하였다.

##### ② 자녀의 수

1980년과 1990년에 주부의 평일의 생활시간중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히 전체 가정노동시간, 식생활관리시간, 의생활관리시간이었다.

선행연구결과 자녀수가 증가하면 가정노동부담이 커지므로 가정노동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역시 자녀가 없는 집단과 자녀가 있는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거의 두 배 가까운 가정노동시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런데 1980년 조사의 경우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노동시간이 증가한데 비해 1990년은 자녀수가 1명일때 가장 시간이 길고 그 다음이 3명이상 2명의 순으로 나타난 것은 자녀수가 1명인 경우 대개 자녀가 학령전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식생활관리시간은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가 2명, 3명인 경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의생활관리시간은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휴일의 생활시간중 자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의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으로 자녀가 많을

수록 의생활시간과 여가시간도 증가한다. 여가시간은 자녀가 없는 집단과 자녀가 1명이거나 2명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③ 막내자녀의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은 주부의 생활시간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고찰에서 밝힌 바 있다. 1980년과 1990년 주부의 평일 생활시간에서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의생활관리, 여가시간이다.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른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관리시간의 변화양상은 1980년과 1990년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1980년 조사결과 막내자녀가 학령후 연령에 달하면 학령전일때 보다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1990년 결과에서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다가 19세 이상에 이르게되면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Scheffe-test 결과 막내자녀연령이 6세이하인 집단과 10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시간은 막내자녀연령이 6세이하일때 가장 적고, 이후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10대 자녀가 있을때 가장 많으며 19세 이상이 되면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6세이하인 집단과 13-18세, 19세 이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 자료에서 평일에 막내자녀 나이가 13-18세인 경우에 식생활시간이 길어진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불규칙한 식사와 간식준비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휴일의 생활시간중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정노동시간, 식생활, 의생활, 여가생활시간이다. 가정노동시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6세이하 집단과 13-18세, 19세 이상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휴일에는 자녀가 7-12세인 경우 평일과 달리 식생활관리시간이 가장 긴데 그것은 휴일에 특별식, 간식 등의 준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의생활관리시간은 휴일에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가시간은 19세이상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녀가 성장



(표 3-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생활시간 ( ) 은 1980년 수치

변수	시간		가정노동시간				식생활관리시간				주생활관리시간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주부의 연령 29세이하 30세-39세 50세이상	8.02		8.52		2.42		2.66		1.07		1.34		1.25(1.4)	2
	8.62(10.5)		8.27(13.5)		2.87(4.2)		2.96(5.0)		1.25(1.4)		0.96(1.9)		1.38(2.0)	4
	8.44(10.6)		7.82(11.8)		3.01(4.8)		3.37(5.1)		1.50(1.7)		1.38(2.0)		1.41(1.2)	1
	8.37(10.1)		7.49(11.6)		3.16(5.0)		2.89(5.4)		1.41(1.2)		2.89(5.4)		2.26	3
F값	0.42 (4.32*)		1.89		4.48** (4.32**)		1.43		2.26 (6.31*)		3.33*			
자녀의 수 없다(없다) 1명(1-2명) 2명(3-4명) 3명이상(5-)	4.97(9.6)		7.40(11.3)		2.04(4.6)		2.91(5.0)		0.90(1.4)		1.38(1.8)		1.15(1.3)	
	8.74(8.8)		8.43(12.4)		2.67(3.8)		2.73(4.8)		1.13(1.7)		1.13(1.7)		1.42(1.8)	
	8.58(11.3)		8.10(12.6)		2.89(4.9)		2.92(5.2)		1.42(1.8)		1.23(2.1)		1.40(1.5)	
	8.69(10.3)		7.86(11.5)		3.15(4.9)		3.03(5.3)		1.40(1.5)		1.12(1.9)		2.04	
F값	8.80** (5.14**)		1.09		5.88** (5.04**)		0.80		2.04 (3.07*)		0.379			
만내자녀의 나이 6세이하(학령전) 7-12세(학령후) 13-18세 19세이상	9.09(8.8)		8.91(12.4)		2.64(4.7)		2.64(5.0)		1.11(1.6)		1.12(1.8)		1.28(1.4)	1
	8.04(10.3)		8.05(11.5)		2.89(4.1)		3.17(4.8)		1.28(1.4)		1.18(1.7)		3.30	4
	9.10		7.79		3.30		3.10		3.30		1.21		2.87	2
	8.18		7.55		2.87		2.81		2.87		1.30		3.76* (3.19*)	3*
F값	2.81 (5.06**)		5.10**		4.30** (4.92**)		3.63*		3.76* (3.19*)		0.43			
주부의 교육수준 국졸이하 중졸 대졸이상	(10.6)		(11.9)		(5.0)		(5.2)		(1.5)		(1.8)		1.29(1.8)	3
	8.84(11.6)		8.06(12.6)		2.88(5.1)		2.80(5.4)		1.29(1.8)		1.45(2.1)		3.08(4.7)	1
	8.83(10.6)		7.90(12.2)		3.08(4.7)		3.08(5.2)		3.08(4.7)		1.21(1.9)		2.64(3.2)	2
	7.87(8.2)		8.22(12.5)		2.64(3.2)		2.78(4.6)		2.64(3.2)		1.14(2.0)		5.36** (4.65**)	
F값	3.18* (7.73**)		0.49		4.52** (3.93**)		2.28		5.36** (4.65**)		1.52			
소득 80만원이하(-15) 81-120(16-30) 161-200(51-) 201이상( )	9.38(11.2)		8.76(12.2)		2.80(5.0)		3.00(5.2)		1.37(1.6)		1.34(1.8)		1.51(1.7)	
	8.66(10.8)		8.16(12.5)		2.93(4.8)		3.07(5.1)		1.51(1.7)		1.45(2.1)		1.08(1.6)	
	7.70(10.2)		7.92(12.0)		2.66(4.6)		2.64(5.2)		1.08(1.6)		1.10(1.8)		1.19(1.2)	
	7.64(8.6)		7.19(12.6)		2.88(4.0)		2.86(4.9)		1.19(1.2)		1.06(2.1)		1.37	
F값	2.99		2.73*		0.90		1.14		1.54		0.85			

(표 3-1) 계속

변수	시간	의 생 활 시 간				여 가 생 활 시 간			
		평일	Scheffe	휴일	Scheffe	평일	Scheffe	휴일	Scheffe
주부의 연령 29세이하 30세-39세 50세이상	F값	2.91	1 2 4 3	1.08		2.51	1 2 3 4	3.86	
		2.99(1.8)	1	0.96(2.2)		3.14(5.0)	1	4.01(6.1)	
		1.29(2.0)	2	1.16(2.4)		3.65(4.7)	2	4.24(6.2)	
		1.08(1.9)	4 *	1.20(2.3)		3.83(5.4)	3*	4.49(6.8)	
F값	F값	5.81** (4.32*)		1.53		5.99** (4.32*)		0.98	
		0.76(1.9)	1 2 4 3	1.43(2.4)		3.18(6.6)		5.42(6.0)	2 3 4 1
		0.99(1.4)	1	0.87(1.8)		2.82(3.8)		3.78(5.4)	2
		1.16(2.1)	2*	1.10(2.5)		3.31(5.5)		4.06(6.6)	3
F값	F값	1.13(2.1)	4*	1.95(2.5)		3.57(4.4)		4.29(6.2)	4
		2.95* (3.99**)	3*	2.88*		1.92 (3.89**)		3.86*	1*
		0.95(1.9)	1 2 4 3	0.94(2.2)		2.42		3.38	1 3 2 4
		1.02(1.4)	1	0.89(1.9)		3.17	1 2 4 3	4.29	1
F값	F값	1.25	2	1.16		3.95		4.11	3
		1.25	4	1.18		3.53	2	4.49	2
		4.47 (4.92**)	3	2.73*		9.84** (4.92**)	3*	4.57**	4
주부의 교육수준 국졸이하 중졸 대졸이상	F값	(2.1)	3 2 1	(2.6)		(4.7)	1 3 2	(4.3)	
		1.38(2.2)	3	1.12(2.6)		2.92(4.9)	1	4.10(4.8)	
		1.15(2.0)	2	1.04(2.3)		3.66(5.1)	3	4.28(4.9)	
		0.94(1.2)	1	1.08(1.6)		3.00(5.4)	2 *	4.02(5.1)	
F값	F값	8.40** (9.25**)		0.17 (6.12**)		4.55**		0.53 (3.14*)	
		1.21(2.2)		0.95(2.6)		2.95(5.1)		3.65(6.4)	
		1.12(2.1)		1.22(2.5)		3.45(4.8)		4.14(6.0)	
		0.91(1.8)		1.03(2.2)		3.12(5.2)		4.47(6.3)	
F값	F값	1.00(1.4)		0.54(1.8)		3.37(4.2)		4.55(5.9)	
		1.12		1.18		3.49		3.90	
		2.42* (4.37**)		1.69 (3.17*)		0.85		1.98	

함에 따라 주부의 여가시간이 탄력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주부의 생활시간을 설명함에 있어 막내자녀 연령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④ 주부의 학력

주부의 학력에 따라 평일의 생활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1980년과 1990년의 조사에서 다 같이 가정노동시간과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의생활관리시간이었다. 주부의 학력은 인적자본으로써 가정노동의 효율적 수행과 관계가 있다는(Evenson, 1983) 주장과 연구결과는 일치하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노동 시간은 감소하는데 이는 주부의 학력과 소득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가정노동 사회화 경향이 고학력 주부에게 있어 더욱 현저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식생활관리시간은 학력이 고졸일때 가장 길고 중졸, 대졸 이상의 순서를 보이며 특히 고졸집단과 대졸이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있다. 한편, 주생활관리시간은 고졸집단이 가장 길고 대졸이상, 중졸의 순서로써 역시 대졸이상집단과 고졸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의생활관리시간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데, 대졸이상인 집단과 중졸, 고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휴일의 생활시간에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없었다.

#### ⑤ 소득

소득에 따라 1980년과 1990년에 공통적으로 도시주부의 평일의 생활시간중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의생활시간이었다. 즉 가계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생활관리시간은 점차 줄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집단은 의생활관리를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설비·시설이 부족함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의생활관리시간이 긴것은 의류 보유량이 많고 의생활을 다양하게 영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휴일의 생활시간중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1990년 조사대상의 가정 노동시간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가정노동시간은 감소하는데 특히 80

만원이하의 집단과 161-200만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2) 주거환경변수에 따른 생활시간 (표3-2)

1980년 주부의 가정노동시간은 주거환경변수중 주택형태, 난방방법, 취사용연료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 주부의 생활시간에 대해서는 위의 변수들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주택형태

1980년 주부의 생활시간중 주택형태에 따라 총가정노동시간, 식생활관리, 의생활관리 시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1990년 주부의 생활시간은 주택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영역이 의생활관리시간만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가 단독주택인 경우 집합주택보다 의생활관리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형태 1980년과 1990년에 공통적으로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생활관리시간이다.

1980년 자료에서는 단독주택인 경우에 집합주택의 경우보다 전체 가정노동시간, 식생활관리시간, 의생활관리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의생활시간에서만 단독주택의 주부가 시간을 길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인 경우에 주택구조나 설비가 덜 집중화되고 기술화되지 못하였으므로 가정노동시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생활, 의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1990년 자료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주택형태와 관계없이 연료의 변화, 편리한 기구사용 등으로 소비시간이 비슷하여 진 것이라고 본다.

##### ② 난방방법

연탄을 사용하는 주부의 경우에, 1980년에는 전체 가정노동시간, 식생활시간, 의생활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1980년에 연탄 아궁이 사용이 62.5%였고 1990년에 1.7%로 감소한 것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비교할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 도시에서 가정난방은 연탄을 사용하더라도 현재는 거의 보일러 형태로 사용하며 기름보일러 사용가정이 78.4%인 점을 감안하면 난방방법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것은 의

〈표 3-2〉 주거환경변수에 따른 생활시간

:( )는 1980년 수치

변수	시간		식생활관리시간		주생활관리시간		의생활관리시간		여가생활시간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주택형태										
양옥	8.81(9.9)	7.9(11.7)	2.94(4.5)	2.84(4.8)	1.37(1.7)	1.27(2.1)	1.20(1.0)	1.10(2.2)	3.28(4.9)	4.22(6.3)
단독한옥	(11.2)	(12.6)	(5.0)	(5.3)	(1.5)	(1.8)	(2.1)	(2.5)	(4.9)	(6.6)
양옥	8.14(11.2)	8.16(12.8)	2.82(5.0)	2.97(5.5)	1.29(1.6)	1.19(1.9)	1.02(2.0)	1.65(2.3)	3.23(5.0)	4.04(5.2)
집합아파트	(9.1)	(13.2)	(3.3)	(4.4)	(1.1)	(1.8)	(1.1)	(1.4)	(5.9)	(5.7)
F값 or T값	1.70 (3.56*)	-0.66	0.86 (4.96**)	-0.90	0.61	0.61	2.33* (3.46*)	0.34	0.22	0.72
난방방법										
연탄아궁이(연탄 및 보일러 아궁이)	8.84(11.0)	7.64(12.4)	2.81(4.8)	2.91(5.2)	1.22(1.6)	1.36(1.9)	1.23(2.2)	0.97(2.6)	3.06(5.0)	4.38(6.3)
(연탄보일러)	(11.0)	(12.3)	(4.7)	(5.3)	(1.6)	(2.0)	(1.8)	(2.1)	(4.7)	(6.5)
기름이나 가스보일러 보일러	8.29(9.9)	8.17(11.8)	2.88(4.1)	2.95(4.7)	1.35(7.1)	1.17(2.0)	1.05(1.4)	1.10(1.89)	3.30(5.4)	4.08(6.0)
F값 or T값	1.13 (5.04**)	1.50	1.20 (3.13*)	1.33	3.31	3.84	1.07 (6.53**)	1.03 (6.96**)	1.58	1.19
취사용 연료										
연탄 및 석유	7.76(11.1)	6.76(12.7)	3.24(4.9)	2.16(5.3)	0.92(1.6)	1.13(2.1)	1.03(2.1)	0.58(2.5)	2.93(4.8)	4.40(6.6)
가스	(9.1)	(11.1)	(4.0)	(4.6)	(1.4)	(1.8)	(1.1)	(1.7)	(4.7)	(5.7)
가스·전기	8.59(9.0)	7.89(11.8)	2.93(4.3)	3.00(5.2)	1.43(1.5)	1.20(2.1)	1.14(1.4)	1.10(2.0)	3.45(4.4)	4.26(5.6)
가스·전기	8.13	8.46	2.81	2.85	1.14	1.24	1.00	1.07	2.99	3.93
F값 or T값	0.83 (4.09*)	3.02*	1.78 (3.58*)	2.66*	3.36*	0.09	1.74 (6.67**)	2.14 (3.49*)	2.03	0.93
부엌형태										
채래식(채래식)	7.33(10.5)	7.34(12.2)	2.46(4.6)	2.61(5.0)	0.97(1.4)	1.40(1.9)	0.93(2.0)	0.93(2.6)	2.92(4.9)	4.44(6.2)
(절충식)	(11.2)	(12.6)	(5.1)	(5.5)	(1.7)	(1.9)	(2.2)	(2.6)	(4.7)	(6.8)
입식(입식)	8.51(10.2)	8.13(12.0)	2.90(4.5)	2.94(5.0)	1.35(1.6)	1.19(2.0)	1.11(1.8)	1.08(2.1)	3.30(5.1)	4.10(6.2)
F값 or T값	1.03	2.15	1.22	2.45	4.09	2.99	1.43	1.12	1.17	1.32 (3.89*)

Scgeffe-test 결과 유의한 변수가 없었으므로 제시하지 않음.

미가 없어졌다고 본다.

### ③ 취사용 연료

1980년과 1990년을 비교할 때 전체가정노동시간은 취사용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약1-3시간 감소하였다. 1980년에는 연탄, 석유를 사용하는 주부의 경우 전체 가정노동시간, 식생활시간, 의생활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였다. 1990년 자료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난방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연탄, 석

유를 사용하는 가정이 1980년 약65%에서 1990년에 3.4%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4) 관련변수가 생활시간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자료를 대상으로 중분류 분석(Multiple Classification

(표 3-3) 생활시간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독립적 효과

변수	생리 적 시간			가사 노동 시간			식생활 시간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총편차	Eta	Beta	총편차	Eta	Beta	총편차	Eta	Beta	총편차	Eta	Beta
자녀수												
0	2.74	-8.23	56.68	-205.86	-178.14	-11.03	-49.20	-40.50	-17	8.39		
1	22.23	20.21	22.88	20.03	.89	-25.35	-11.46	.79	-10.80	-2.40		
2	-4.64	-4.49	-13.45	11.91	14.17	6.38	2.03	.13	.90	-2.12		
3이상	-9.76	-7.13	-12.04	17.02	21.83	12.84	17.59	9.22	7.00	2.81		
	.18	.16	.24**	.29**	.26	.11	.24	.17	.09	.05		
소득												
80이하	27.36	21.04	33.39	58.68	60.59	42.10	-3.66	1.19	5.41	9.39		
81-120	-11.94	-12.41	-13.93	15.28	9.26	7.24	4.06	4.20	5.78	8.53		
121-160	6.21	5.21	1.69	-42.24	-26.91	-14.08	-12.37	-7.60	-16.15	-15.68		
161-200	-7.09	-2.58	2.42	-45.64	-44.33	-50.65	1.06	-1.25	-2.83	-6.11		
201이상	-18.56	-12.69	-28.13	.78	-13.91	4.59	13.76	2.97	7.72	.65		
	.24**	.19	.26*	.20*	.19	.19*	.12	.06	.13	.14		
주부의 학력												
중졸이하	13.57	19.46	18.74	26.17	2.63	7.08	1.36	-2.82	-6.39	-6.19		
고졸	.85	4.70	-6.24	26.56	20.05	-7.77	13.80	9.27	10.44	7.11		
대졸	-4.55	-9.73	.57	-31.76	-19.23	5.16	-13.12	-7.78	-7.86	-4.85		
	.08	.15	.09	.15	.10	.06	.18	.11	.13	.09		
막내자녀의 연령												
6세이하	16.34	6.69	.97	43.01	34.95	51.73	-13.04	-11.21	-15.98	-13.83		
7-12세	.19	.40	7.60	-21.70	-29.31	9.62	1.64	.19	15.48	19.04		
13-18세	-15.20	-11.90	10.38	41.88	18.75	-22.03	26.26	18.53	11.53	9.13		
19세이상	-2.23	3.64	-12.91	-62.12	-29.81	-36.47	-11.27	-5.44	-4.91	-7.20		
	.17	.11	.09	.24	.15	.22*	.23	.16	.18*	.18		
취사연료												
연탄	-11.79	-30.47	-11.43	-38.61	-79.83	-90.15	-37.20	-47.58	-45.17	-56.74		
가스	.27	.80	.40	11.53	13.12	-8.18	4.03	3.38	4.76	3.45		
전기·가스	.68	1.61	1.76	-15.36	-14.03	22.17	-3.09	-1.01	-3.54	.25		
	.03	.09	.02	.08	.10	.14*	.11	.13	.14*	.16		
R <sup>2</sup>	.104	.118	.118	.165	.106	.114	.081					

(표 3-3) 계속

변수	의 생활 시간			주 생활 관리 시간			가족 돌보 기 시간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빈도												
20	-19.40	-24.33	21.32	-35.38	-19.41	9.84	-84.41	-60.83	-103.50			
0	-5.47	5.66	-11.83	-10.30	1.50	-4.84	58.80	-5.93	55.47			
1	4.34	4.00	1.71	6.51	4.76	1.45	-6.69	.36	3.88			
2	2.69	-4.14	1.54	4.75	-3.20	-3.96	-15.30	18.49	-24.30			
3이상	.17*	.21	.17	.15	.10	.06	.34*	.18	.41***			
소 득												
61	7.39	7.79	-7.05	3.08	4.99	7.75	43.34	34.52	28.37			
81-120	4.76	3.82	9.25	11.30	11.42	4.05	-2.86	-7.24	-11.24			
121-160	-10.83	-9.06	-2.57	-14.55	-11.17	-6.47	1.403	3.47	10.27			
161-200	-5.15	-4.68	-7.95	-7.70	-8.64	-8.98	-29.76	-29.17	-19.53			
201이상	.18	.22	6.73	5.08	-1.28	1.21	-24.06	-13.58	-12.46			
주부의 학력												
36	17.76	13.89	3.04	-1.49	-6.68	14.56	-2.88	-3.86	-22.99			
중졸이하	3.88	2.28	-1.68	14.38	11.11	.34	-12.70	-5.77	-16.42			
고졸	-8.506	-5.95	.71	-12.86	-8.41	-4.35	12.52	6.39	21.40			
대졸	.24*	.17	.03	.20*	.15	.10	.11	.05	.29*			
막내자녀의 연령												
78	-8.49	-11.14	-7.64	-11.44	10.94	-5.54	88.48	81.74	87.94			
6세이하	4.14	-5.99	-10.57	-2.18	-4.17	-1.73	-14.04	-13.52	-1.15			
7-12세	9.83	6.96	5.40	22.72	18.76	.02	-34.58	-39.18	-27.15			
13-18세	2.26	8.41	9.44	-7.26	-3.05	6.32	-44.44	-34.51	-58.86			
19세이상	.19*	.23	.18	.21	.17	.08	.51*	.47	.59***			
취사연료												
10	-3.65	-15.53	-29.68	-24.13	-33.46	-5.16	23.59	20.55	10.58			
연탄	3.36	2.62	1.75	7.79	6.82	.74	-6.56	-2.01	-12.78			
가스	-5.21	-2.84	-.04	-10.56	-8.06	1.72	8.58	1.34	22.04			
전기·가스	.11	.10	.12	.15*	.15	.03	.08	.04	.17			
R <sup>2</sup>	.138			.113			.033			.418		

(표 3-3) 계속

변수	빈도	가정경영시간						여가생활시간						기타시간					
		평일		휴일		Beta		평일		휴일		Beta		평일		휴일		Beta	
		총편차	Eta	총편차	Eta	총편차	Eta	총편차	Eta	총편차	Eta	총편차	Eta	총편차	Eta	총편차	Eta	총편차	Eta
자녀수	20	-27.47	-33.07	31.08	20.68	-5.26	-30.93	76.70	47.02	194.84	195.57	13.24	6.86						
	0	-11.54	-1.13	-5.66	-3.97	-27.403	19.17	-21.59	15.49	-10.55	-32.83	-12.53	9.88						
	1	5.73	5.18	-5.06	-4.73	2.68	-1.40	-7.97	-12.46	-7.70	-6.46	5.67	5.01						
	2	7.29	1.46	4.02	4.74	18.08	-5.28	9.37	-5.50	-27.54	-12.48	-1.57	-16.20						
3이상		21*	.19	.16	.14	.11	.20	.14	.23	.08	.11								
소득	61	8.53	12.10	7.20	7.57	-19.04	-8.79	-23.04	-27.87	-71.51	-80.40	-10.30	-10.40						
	80이하	-1.98	-2.94	-2.17	-1.53	10.83	11.55	-.03	2.34	16.04	19.82	13.20	13.73						
	81-120	-5.88	-2.56	6.89	5.45	-9.06	-3.20	20.17	19.78	38.87	21.34	7.68	11.30						
	121-160	-4.08	-5.59	-13.09	-13.88	5.93	.51	24.78	21.68	25.40	25.80	-13.99	-10.93						
	161-200	3.89	-2.25	-1.04	.19	13.99	-3.28	-14.33	-15.91	-7.88	21.23	18.26	19.00						
201이상	.11	.13	.12	.13	.11	.06	.17	.16	.17	.18	.13	.13							
주부의 하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36	11.42	2.10	11.44	9.45	20.87	-33.89	-2.05	-1.22	4.43	27.81	-15.26	-17.28						
	120	7.19	3.15	-2.74	-2.96	23.94	16.20	8.49	7.37	-51.91	-41.52	20.65	20.95						
	130	9.80	-3.49	-.64	.12	-16.32	-5.57	-7.27	-6.47	46.69	30.62	-14.84	-14.55						
		.18	.07	.08	.07	.18*	.14	.06	.05	.20*	.15	.18*	.18						
박내자녀의 연령 6세이하 7-12세 13-18세 19세이상	78	-12.51	-13.51	-7.56	-5.95	-51.40	-58.47	-46.12	-44.75	-7.47	13.87	-26.61	-26.25						
	54	-2.98	-5.81	-2.97	7.81	-5.73	-10.45	9.31	9.48	28.18	38.45	5.57	-.98						
	71	17.65	13.67	-5.77	-5.49	41.09	42.05	-1.68	5.25	-71.46	-54.76	4.42	2.73						
	83	1.40	4.78	13.97	9.76	16.88	25.78	38.73	31.40	49.81	8.79	17.60	22.96						
	.22*	.21	.16	.12	.30***	.35*	.27	.24	.20	.14	.17	.19							
취사연료 연탄 가스 전기·가스	10	2.78	-3.79	12.33	10.63	-20.51	-17.49	15.70	18.32	116.34	158.92	56.24	57.24						
	172	2.90	2.31	-3.02	-3.20	11.14	9.30	6.79	5.09	-18.24	-18.11	-8.11	-10.20						
	104	-5.07	-3.46	3.81	4.28	-16.45	-13.70	-12074	-10.17	18.98	14.67	8.01	11.36						
		.08	.06	.07	.07	.12	.10	.08	.07	.12*	.15	.13*	.15						
R <sup>2</sup>		.106	.063	.133	.112	.149	.100												

Analysis)를 하였다(〈표 3-3〉). 먼저 관련 변수중 유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수, 가계소득, 주부의 학력, 막내자녀의 연령, 그리고 취사용연료이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여부를 1% 미만 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상호작용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모두 중분류분석에 포함시켰다.

먼저 평일의 생리적 시간에 독립적 효과를 갖는 변수는 소득이며, 휴일의 생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과 자녀수로서 소득이 자녀수보다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주부의 생리적 시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부가 자기자신의 건강, 휴식, 치장 등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다고 본다.

가정노동시간에 평일에 독립적 효과를 갖는 변수는 자녀수와 소득이며 휴일의 가정노동시간에는 소득이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1명일 때, 소득이 적을 때 가정노동시간은 길어지는데 이는 자녀가 1명이면 자녀가 어리다고 볼 수 있고, 남편의 나이도 적기 때문에 소득도 적고 따라서 설비도 부족하여 가정 노동시간이 길어진다고 본다. 휴일의 식생활관리시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막내자녀의 연령과 취사연료였으며 평일의 의생활관리시간에 대해서는 주부의 학력과 막내자녀의 연령, 그리고 자녀수가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주생활관리시간에는 주부의 학력과 취사연료가, 평일의 가족돌보기 시간에서 평일과 휴일 모두 막내자녀의 연령과 자녀수, 그리고 월수입이 독립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가정경영시간에는 막내자녀의 연령과 자녀수가, 여가시간에는 막내자녀연령과 주부의 학력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타시간에 있어서 평일에는 자녀수와 막내자녀연령, 그리고 취사연료가 휴일에는 주부의 학력과 취사연료가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면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내용에 따라 다르다. 소득, 자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막내자녀나이, 취사연료, 주부의 학력 등 입을 알 수 있다.

각 변수를 독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기는 하였으나, 소득은 막내자녀 나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막내자녀 나이가 어리면 남편의 나이도 젊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경륜과 직급에 따라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V. 결론 및 제언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을 시계열적으로 조사비교분석하는 것은 주부의 시간자원 사용패턴과 가정생활양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가정생활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1980년과 1990년의 주부의 생활시간을 비교하고, 관련변인에 따라 생활시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관련변인이 주부의 생활시간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1980년 이래 10년 동안에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른 것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한국은 큰 변화양상을 나타내었고, 주부의 생활시간도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정노동시간은 평일의 경우, 약 3시간, 휴일에는 4시간 정도 감소하였다. 여가시간을 포함한 개인시간은 약 1시간 증가하였다. 1980년에는 연령, 자녀수, 막내자녀 나이, 주부의 교육수준, 주택형태, 난방방법 등이 가정노동시간의 큰 영향변수이었으나, 1990년에는 자녀수, 주부의 교육수준만이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자료에 의하면, 생활시간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독립적 효과는 생리적인 시간에는 소득이, 가정노동에는 자녀수, 막내자녀 나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0년전이나 현재나 공통적으로 주부의 가정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수, 막내자녀의 나이, 소득, 그리고 주부의 교육수준이다. 1990년 조사에 의하면 주택형태나 난방방법은 주부의 가정노동시간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주택형태나 난방방법 등과 같은 물리적 조건은 더 이상 주부의 가정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주택형태는 단독일반주택이라 해도 생활양식의 간소화, 기계화의 면



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 가정생활에서 눈에 띄는 큰 변화를 하게 되었다. 주부학력과 소득의 향상이 뚜렷하고, 난방방법과 취사용연료가 현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정노동시간은 감소한 반면 주부자신을 위한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가정노동시간중에도 가정관리시간과 가족시중시간이 증가한 것은 가정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단순노동적 서비스보다는 관리적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주부의 생활시간 및 가정노동시간을 시계열로 분석하는 것은 현대가정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고 가정자원관리생활의 변화를 조명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사료되며 그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의의있으며 시간관리연구와 가정자원연구를 위한 의미있는 자료라고 본다.

본 연구는 1980년과 1990년에 주부의 생활시간을 비교분석함에 있어 몇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1980년 보고서는 주부의 가정노동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행해졌으므로 관련변인에 따른 주부의 생리적 시간의 차이는 분석되지 않았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그 부분의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앞으로 계속하여 이러한 시계열 분석이 요구되므로 일관된 변인선정과 분석방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강신주·서영숙·최보가(1968), 생활시간관리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6), 133-141.
- 2) 김외숙(1977),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 문숙재·정영금(1988), 도시주부의 가정생산 시간 및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6(2), 103-118.
- 4) 민경애·윤복자(1985),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3(1), 15-22.
- 5) 박원임(1976), 도시주부의 여가시간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6) 안영희(1977), 주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16(2), 19-26.
- 7) 이정수(1984),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 8) 이정수·고경애(1985),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3(2), 67-90.
- 9) 임정빈(1981),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73-87.
- 10) ———(1984), 가정노동의 경제적 가치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117-132.
- 11) 조성은(1990),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2) 조희금(1990),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63-180.
- 13) 한국은행(1990), GNP로 본 우리나라 경기의 특징.
- 14) 한경미(1987),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광주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5) 한경미·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16) Becker, G.(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17) Bellante, D. & Foster, A.C.(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s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700-707.
- 18) Evenson, R.E.(1983), *The allocation of women's tim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Behavior Science Research*, B17(3), 196-215.
- 19) Feldman, V.P. & Hornik, J.(1981), The use of time: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407-419 J.
- 20) Hafstrom, J.L. & Schram, V.R.(1983), *Housework time of wives: Pressure facilitators*, 11(3), 245-255.
- 21) Hill, M.S.(1988), Marital stability &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 427-451.
- 22) Leibowitz, A.(1974), Education and Home Production,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64 (2), 243-250.
- 23) Matsushima, C. & Suzuki, Y.(1982), Household use of time-transitions from 1960-1980,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229-246.
- 24) Nichols, S.Y., Metzen, E.J.(1978),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2), 85-97.
- 25) Nichols, S.Y. & Fox, K.D.(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97-208.
- 26) Sanik, M.M.(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A decade comparison 196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175-180.
- 27) Walker, K.E. & woods, M.E.(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